

KIA 화끈한 홈런쇼...4위 고수



손지환 연타석 투런포 등 3방 폭발

선발 전원 안타...롯데에 8-2 대승

KIA 타이거즈가 화끈한 '홈런쇼'로 4위 자리를 굳게 지켜냈다. KIA는 10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방문경기서 이재주의 투런포와 손지환의 3, 5회 연타석 아치쇼 등 홈런 3방을 포함해 선발 전원 안타(14안타)를 앞세워 8-2로 대승했다. KIA는 이로써 5위 두산과 1.5게임차 4위를 유지했고 최근 롯데전 5연패와 사직구장 3연패의 악몽에서도 벗어났다.

KIA 선발 김진우는 6.2이닝 7탈삼진, 무실점 호투로 시즌 10승째(3패)를 챙겼다. 비통을 이어받은 '미들맨' 정 원은 지난 8월 4일 이후 한달여만에 출장, 1이닝 2안타, 무실점으로 KIA 마운드의 든든한 '구원병' 역할을 소화했다. KIA는 0-0으로 평행선을 달리던 3회 이재주와 손지환의 '징검다리' 투런포로 4점을 뽑아내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이어진 4회에도 KIA는 장성호의 2타점 2루타로 2점을 추가했고 5회에는 무사 1루서

◇10일 사직경기

KIA	0	0	4	2	2	0	0	0	0	8
롯데	0	0	0	0	0	0	0	2	0	2

▲승리투수=김진우(10승3패)
▲패전투수=이상목(10승6패)
▲홈런=이재주 12호(3회 2점) 손지환 3호·4호(3회 2점·5회 2점·이상 KIA) 박연수 1호(8회 2점·롯데)

손지환의 시즌 4호 홈런으로 승부를 사실상 마감했다.

한편 대구에선 '선투' 삼성이 두산을 2-1로 꺾고 4연패의 사슬을 끊었고, 수원에선 홈팀 현대가 한화를 4-3으로 눌렀다. 잠실에선 SK가 '꿀맛' LG에 3-2로 신승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추신수 또 3루타

시즌 3번째...팀 첫 득점도 올림

추신수(24·클리블랜드 인디언스·사진)가 시즌 세번째 3루타를 뽑아내며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10일(이하 한국시간) 시카고의 US셀룰러필드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경기에서 0-5로 뒤진 4회 초 선두타자로 나와 상대 선발 우완 존 갈랜드가 던진 7구째 시속 130km(81마일)짜리 낮은 변화구를 통타, 우중간 펜스를 직접 맞는 큼직한 3루타를 때렸다.

추신수는 1사 후에 헥터 루나의 투수 앞 땅볼 때 빠른 발로 힘껏 홈까지 파고들어 팀의 첫 득점에도 성공했다.

시즌 3번째 3루타를 터뜨린 추신수는 지난 5일 토론토전부터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펼쳤다.

추신수는 1회 2사 1, 2루에서는 2루 땅볼로 물러났고 6회 세번째 타석에서는 1루 땅볼로 아웃됐다.

팀이 5-10으로 뒤진 7회 1사 1, 2루에서는 2루 땅볼을 쳤지만 야수선택으로 출루한 뒤 다음 타자 케빈 코츠마노프의 3점 홈런으로 득점을 추가했다.

9회 2사 후 다섯번째 타석에서는 좌완투수가 마운드에 올라 대타 제이슨 마이클스로 교체됐다.

좌익수 겸 5번 타자로 선발출장한 추신수는 이날 4타수 1안타를 기록해 시즌 타율이 0.286에서 0.284(116타수 33안타)로 조금 떨어졌다.

클리블랜드는 안타 29개를 주고 받는 화끈한 타격전 끝에 8-10으로 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유제국 好投

브레이브스전 구원등판

2.20이닝 3 피안타 1실점

유제국(23·시카고 컵스·사진)이 메이저리그에 복귀한 뒤 첫 등판에서 비교적 호투를 펼쳤다.

유제국은 10일(한국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 터너필드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방문경기에서 구원등판해 2.2이닝 동안 삼진 2개를 잡

았지만 홈런 1개 등 안타 3개를 맞고 1실점했다.

지난 6일 시즌 네번째로 메이저리그에 올라온 유제국의 평균 자책점은 10.29(종전 14.54)로 낮아졌다.

유제국은 팀이 2-4로 뒤지던 4회 말 선발 웨이드 밀러를 구원등판해 첫 이닝을 삼자범퇴로 깔끔히 마무리했지만 5회 선두타자 앤드류 존스에게 좌측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홈런을 허용했다.

이후 연속 5명의 타자를 범타로 처리했지만 6회 2사 후에 마커스 자일스와 윌리 아이바에게 연속 안타를 내준 뒤 좌완 레스 왈론드로 교체됐다.

시카고 컵스는 홈런 3개 등 안타 12개



를 얻어맞고 3-7로 역전패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본즈 731호

최다홈런에 24개차

메이저리그 역대 최다홈런에 도전중인 배리 본즈(42·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사진)가 개인통산 731호 홈런을 쏘아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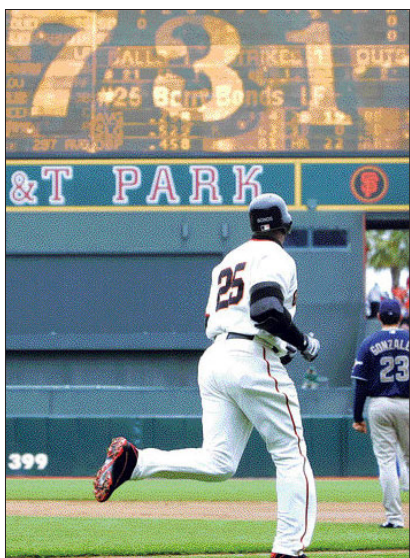
본즈는 10일 샌프란시스코 AT&T파크에서 벌어진 샌드에이고 파드레스와 경기에서 1회말 상대 선발로 나선 '뚝보' 데이비드 웰스로부터 우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2점홈런을 터뜨렸다.

이로써 시즌 23호이자 개인통산 731호를 기록한 본즈는 메이저리그 최다홈런 기록 보유자인 Hank Aaron(755홈런)에 24개 차로 다가갔다.

그동안 본즈가 웰스를 상대로 친 홈런은 3개에 불과하지만 샌드에이고를 상대로는 메이저리그 팀 중 가장 많은 85번째 홈런을 뽑아냈다. 본즈는 4회에도 좌완안타를 뽑아 5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는 4-4로 팽팽히 맞선 11회말 1사 뒤 레이 더렘의 3루타에 이어 고의사구 2개로 1사 만루를 만든 뒤 대타 마크 스위니의 내야땅볼로 결승점을 뽑아 5-4로 승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테니스 요정' 샤라포바 'US오픈' 첫 우승

여단식 결승서 에빙 2-0 제압
메이저대회 2번째 정상 올라

'요정' 마리아 샤라포바(세계랭킹 4위·러시아)가 총상금 189억원이 걸린 올 마지막 메이저테니스 대회인 US오픈에서 우승하며 2년 간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세계 여자테니스 정상에 복귀했다.

샤라포바는 10일(한국시간) 뉴욕 빌리진 킹 내셔널테니스센터에서 열린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올 프랑스오픈 우승자인 쥐스틴 에빙을 2-0(6-4 6-4)으로 꺾고 지난 2004년 윌블던 우승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감격적인 메이저대회 두 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샤라포바는 특히 올 1월 호주오픈 4강전에서 에빙에게 1-2(6-4 1-6 4-6)로 졌던 아픔을 깨끗이 설욕했다.

아울러 지난해 베를린오픈 이후 에빙에게 당했던 4연패 사슬도 끊었다. 통산전적은 에빙이 4승2패로 앞서 있다.

샤라포바는 17살이던 2004년 헤싱갈이 등장, 윌블던 우승을 차지하며 단숨에 여자 테니스를 지배할 스타로 각광받았으나 이후 8개의 메이저 대회에서 5번이나 4강에서 고배를 마셔 '4강 전문 선수'라는 딱지 붙은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

정상급 실력을 갖추고도 세기가 부족하고 마지막 순간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아직 완숙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회 준결승에서 3전 전패로 열세이던 아말리 모레스코(1위·프랑스)를 제치며 자신감을 얻은 샤라포바는 에빙마저 넘어뜨려 2년 만에 최정상 자리를 탈환했다.

한편 남자 단식에서는 '황제' 로저 페더러(세계랭킹 1위·스위스)와 '강서버' 앤디 로딕(10위·미국)이 우승을 놓고 격돌한다.

페더러는 10일(한국시간) 뉴욕 빌리진 킹 내셔널테니스센터에서 벌어진 4강전에서 니콜라이 피리코프(6위·러시아)를 3-0(6-1 7-5 6-4)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후 벌어진 준결승전에서 로딕은 전패 특이인 서브 에이스 14개를 폭발시키며 미하일 유즈니(54위·러시아)에 3-1(6-7(5-7) 6-0 7-6(7-3) 6-3)로 역전승을 거두고 지난 해 윌블던 준우승 이후 5개 대회 만에 메이저대회 결승에 진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태현 역부족

프라이드 데뷔전 기권패

민속씨름 천하장사 출신 이태현(30)이 일본 종합격투기 프라이드 데뷔전에서 완패했다.

이태현은 10일 오후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열린 프라이드 그랑프리 2006 결승전 인맥에게 출전해 경험 부족에 체력 부진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브라질의 히카르도 모라이스(39)에게 1회 9분만에 기권패했다.

국내 모래판에서 세 차례나 천하장사에 올랐던 이태현은 4만5천여 관객이 운집한 이날 경기에서 씨름기술로 모라이스를 넘어뜨렸을 뿐 발차기나 펀치 등 기술에서 상태에 시종일관 밀려 결국 쓴 잔을 들어야 했다. 민속씨름 630경기에서 472승158패를 기록해 높은 승률을 자랑했던 그였지만 브라질 유술을 주특기로 삼아 그라운드와 타격이 뛰어난 모라이스의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승엽 내년에도 4번 타자 맡아달라"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기쿠하나 다쿠오 구단주 대행이 "이승엽이 내년에도 요미우리의 4번 타자를 쳐 줘면 좋겠다"며 또 한번 러브콜을 보냈다.

요미우리 계열의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투치'는 9일 인터넷판에서 전설 요미우리-야쿠르트전을 관전한 기쿠하나 구단주 대행이 이날 1사 1, 2루에서 왼쪽 무릎 통증을 앓고 있는 이승엽이 2루 땅볼로 선취타점을 올리며 3경기 연속 타점행진을 올린 것을 지켜보고 "안타가 땀이면 좋았겠지만 귀중한 1점이었다"며 이승엽을 극찬했다고 보도했다.

기쿠하나 요미우리 구단주 대행

시즌 94타점으로 타이론 우즈(99개·주니치), 라미레스(98개·야쿠르트)에 이어 센트럴리그 타점 부문 3위에 오른 이승엽은 경기를 많이 치러 쉽지는 않겠지만 홈런과 타점 등 2관왕에 도전 중이다.

기쿠하나 구단주 대행은 "이승엽을 내년에도 잔류시키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즌 중 보여준 일관된 태도를 견지했다.

기쿠하나 대행은 신인 투수에게 뒷돈

을 쥐 사임한 와타나베 쓰네키 구단주를 대신해 요미우리 구단을 총괄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다.

요미우리는 자타공인 일본 최고 명문 구단으로 발표된 연봉액의 2배 이상을 선수단에게 각종 옵션과 보너스 등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일본 야구계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

적어도 메이저리그 구단과 금전 싸움에서는 요미우리가 밀릴 게 전혀 없다는 게 정설.

중요한 것은 이승엽의 선택에 달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